

안녕 安寧 Farewell

July, 2017 | 최지웅

page 1 of 2

안녕 安寧 Farewell

Text & Photography Ji Woong Choi

84

모두가 '좋아요'를 갈구하는 시대, 작가 박찬경은 회의주의자이다.
그것이 결국 희망적인 것이라 믿는다. 예술가는 분노하고 비판하기만 해선 안 된다.
그건 너무 쉽다. 생각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5년 만에 열린 개인전, 박찬경은 이름 없이
죽어간 가여운 이들에게 애도의 인사를 건넨다. '안녕'



기억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 초반 시청 앞 일본식 술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 보수 정권에서 작가로 사는 일이 어려움, 우리가 안주로 올랐던 자리다.

아 그때 봤구나. 기억난다. 작가로 사는 일이라 정권과 상관없이 쉬운 것은 아니니 큰 변화는 없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적은 있는 것으로 안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분위기가 침체되긴 했다. 작업을 해서 내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 드는 시기였다.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 <시민의 숲>이 인상적이다. 온당히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시민의 숲'은 작년 여름에 촬영한 영상 작업이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에 촬영한 건데 세상에 공개된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하다. 의도한 건 아니는데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전부터 박근혜 정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월호가 늘 마음에 있었다. 어떤 이는 침묵하거나 어떤 이는 분노했다. 무엇이 맞는 태도인지 나도 혼란스러웠다. 겨우겨우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 권병준, 김상돈 등 동시대 작업자들의 협업도 인상적이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점점 더 그렇게 할 것 같고, 작가가 모든 작업을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별하거나 새삼스러운 이이나 계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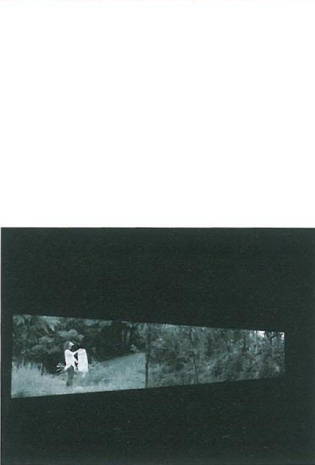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영화감독 박찬경'의 본격적인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 팬이다.

그게 참 어렵다. 영화라는 작업은 큰돈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네.

박찬경 개인전이 열리는 이곳 국제갤러리와 멀지 않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박찬욱 감독과 함께 하는 '파킹찬스'의 새 작업을 볼 수 있다.

형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 2000년작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다. 그때 경기도 남양주에 방문점 세트를 지어서 촬영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보니 완전 패허처럼 변해 있더라. 마치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제목이 <격세지감>인 작업이다. 그 영화를 회고하는 의미로 여러 기억들을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작업이다. 세트장을 3D로 촬영한 15분짜리 영상 작업이다.

작가 박찬경의 초기작 중 남과 북의 이미지를 다룬 몇 개의 작업이 있다.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예술가들이 북한에 가서 전시하거나, 대중 가수가 북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린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민간적인 사업은 조건 없이 재개되면 좋겠다. 서로 비방도 하지 말고, 말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정도 로만 교류가 된다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훨씬 낫지 않을까? 기특이나 좁은 나라에서 너무 답답하지 않나.

박찬경의 작업에 등장하는 여성에 관심이 많다.

'탄신'이라는 작품을 할 때 김금화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었다. 한국의 근현대사 내내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무속에 관심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많은 무당들이 여자다. 내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여성을 향한 그런 억압, 차별 같은 것들이 그들을 무당으로 만들었음지도 모를 일이다. 무당이라는 게 정신적으로는 내가 아닌 타자를 추구하는 것이지 않나. 그 상태로 다른 세계로 떠나려는 열망이 있는 것이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라는 작품이 있다. 안양이라는 도시가 1970년대에는 완전히 공장이었다. 굉장히 많은 여공들이 그곳에서 일했는데 밤에 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잠갔다가 화제가 난 그런릴 화제 사건을 다룬다. 일부러 의식하는 건 아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대상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 보다.

박찬경 작가의 작업을 이루는 두가지 축은 귀신과 한국의 근현대사인 것 같다. 작가로서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 건가?

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사로 보자면 낭만주의자에 가깝다.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지금 사회의 현실에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반영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 뜬금없더라도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예술가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냉정히 말해서 지금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해박야 수만 명이 보러 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밖으로 꺼내 보여줘야 한다. 한편,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술 문화가 서구적인 제도나 관습에 지나치게 식민화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좀 자주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까지 자신의 지역성과 구제성을 회복해야 한다.

새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새 대통령을 다루는 미디어의 방식이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망할 날만 받아놓는 것처럼 앞이 캄캄할 뿐이다.

나보다 더 회의적이네(웃음).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게 참 중요하다. 내가 진짜 회의적인 인간이거든. 그게 좋다. 세상을 바라볼 때 회의적인 게 많으면 그만큼 희망도 많이 있다는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